

정조국까지 영입한 '강원의머니게임'

사커 토크

10명 영입에 내년예산 200억 예상
조태룡 대표이사 "재정 걱정 없다"
넥센시절 이어 남다른 영업력 자신



조태룡 대표

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도·시민구단이 과욕을 부리다 탈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우수 사무총장은 20일 강원 조태룡 대표이사와의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일각의 우려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한 총장은 21일 "들만의 대화라(내용을) 다 밝힌 순 없지만, 조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믿음이 갔다"며 강원원의 '광폭행보'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은 챌린지(2부리그) 무대를 누빈 올해 65억원의 예산을 썼다. 최근의 '폭풍영입' 등을 고려하면 내년 200억원 가까이 들 수 있다. 3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 필요하다. 조 대표이사는 그동안 "나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부모? 적어도 내가 강원FC 사장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이사의 자신감에는 '들어오기로 한 돈'과 '앞으로 들어올 돈'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네이밍 스폰서 계약인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강원은 내년 시즌 강원랜드에 구단 명칭을 팔면서 최소 80억 원을 확보했다. 들어오기로 한 돈은 더 있었다. 클래식 승격 확정 이전에 강원도가 내년 강원 구단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40억원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승격 확정 이후 전폭적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강원도의회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조 대표이사는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구단에 지급되는 금액의 집행시기도 구단 편의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

강원랜드와 강원도에서 확보한 돈이 '들어오기로 한 돈'의 큰 줄기라면, '앞으로 들어올 돈'은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추가 스폰서 수익이다. 프로야구 넥

센 히어로즈 단장으로서 스폰서를 유치하며 남다른 '영업력'을 보여줬던 조 대표이사는 클래식으로 승격하면서 스폰서 수익의 확대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게임의 상품을 잘 만들어놓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모인다'는 공격적 사고방식이다. 조 대표이사는 최근 강원도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강원FC가 잘하면 도민들에게 돌아갈 기쁨은 100배가 될 것이다. 각 군과 시에서 올해보다 10배 더 많이 강원FC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강원도의 11개 군은 2000만원씩, 7개 시는 3000만원씩을 강원 구단에 지원했다.

이근호를 시작으로 오범석, 문창진 등의 실력파에 정조국까지 확보하면서 당장 들어가야 할 돈도 제법이지만, 조 대표이사는 '이적료 할부지급' 등을 통해 현금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폭풍영입 강원원의 숙제는 조직력

"시즌 초 선수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조태제 감독, 최윤겸 감독에게 조언



최윤겸 감독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겨울이적시장이 열리자마자 한 발 앞서 리그 정상급 선수들을 데려 영입하고 있는 강원FC에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하다.

내년 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으로 승격하는 강원FC는 최근 공격적인 선수 영입으로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다. 강원은 9일 제주 유나이티드의 간판 공격수 이근호를 잡은 것을 시작으로 올림피대표팀 출신 문창진, 올 시즌 클래식 득점왕이자 최우수선수(MVP)인 정조국 등을 잇달아 품어 안았다. 지난 2주간 강원이 영입한 선수는 공식적으로 총 10명인데, 이들로만 새로운 선발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다. 때문에 강원은 최근 타 구단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편으로는 급격히 몸집을 불리는 강원을 향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승격을 일궈낸 기존 멤버들과 팀에 새로 합류하는 선수들 사이에 이월해야 할 '화합'의 문제 때문이다. 만약 강원원의 새 전력들이 주전 자리의 대부분을 꿰찰 경우 그동안 팀을 이끌어온 주축 멤버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한층 강화된 전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강원으로서선 오히려 팀 조직력 차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원FC도 올 시즌 클래식 승격을 앞두고 전력보강에 힘썼지만, 리그 초반 새롭게 꾸려진 스쿼드 내에서 선수들의 조직력을 이끌어내지 못해 고전했다. 이는 결국 수원FC가 클래식 잔류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수원FC 조태제 감독은 강원 최윤겸 감독에게 본인의 경험을 적극 공유해줬다. 조 감독은 "시즌 초반 선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개개인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기존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한다. 최윤겸 감독에게도 이런 점들에 대해 이기기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근호와 정조국은 여러 팀을 많이 다녀왔고, 멘탈이 좋아 팀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강원이 클래식에서 잘 버텨 다른 팀들에도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성원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뜨영까지 합류...강원FC "세르징요 빼고 외국인선수 다 바꿔"

2017시즌 아시아쿼터 선수로 활용

검증된 토종 베테랑들을 데려 끌어모으며 K리그 겨울이적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강원FC가 외국인선수 진용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주자는 클래식(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르영 우언 뜨영(21·베트남)이다. 강원 구단 관계자는 21일 "뜨영을

데려오려고 한다. 영입에 필요한 마지막 세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뜨영은 아시아쿼터로 2017시즌부터 강원 유니폼을 입는다.

강원은 챌린지(2부리그)에서 편을 울 시즌 브라질·시리아 이중국적자로 등 록한 세르징요(28)를 아시아쿼터 외국인선수로 활용했으나, 위조여권 사용 혐의가 시즌 말미 불거지면서 신분 정

리가 필요해졌다. 올 시즌 클래식 승격에 일조한 외국인선수 4명 가운데 세르징요만 남기고 전부 바꾼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이 뜨영을 데려오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홍행'이다. 아시아축구계에서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베트남축구의 간판인 뜨영이 올해 초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인천에 입단했다는 소식



뜨영

은 현지에서도 상당한 화제가 됐고, 당시 인천 구단 역시 "마케팅을 위한 포석도 분명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뜨영의 기량에 대한선 여전히 의문 부호가 많다. 올 시즌 인천 유니폼을 입고 4경기에 나왔으나, 100% 적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아우구스부르크 지동원(맨 왼쪽)이 21일(한국시간)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16라운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시즌 4호 골을 폭발시키며 팀의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도르트문트 | AP뉴시스

지동원 시즌 4호 골 '강팀 킬러의 부활'

분데스리가 리포트

도르트문트전 선제골로 1-1 무승부
바이에른 뮌헨 등 상위팀 상대 골맛

아우구스부르크는 21일(한국시간)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벌어진 2016~2017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6라운드 도르트문트와의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겨 기분 좋게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4승6무6패, 승점 18로 12위다. 원톱으로 선발출전한 지동원(25)은 0-0으로 맞선 전반 33분 도르트문트 골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올 시즌 4호 골이다.

14일 지휘봉을 잡은 마누엘 바움(37) 감독 체제에서 아우구스부르크는 2경기 연속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17일 안방에서 뮌헨글라트바흐를 1-0으로 꺾은 데 이어 이날은 막강 도르트문트 공격진을 공공 뚫으며 승점 1을 챙겼다. 독일 언론에선 "아우구스부르크 수비가 아우바메양을 완전히 고립시켰다"고 높게 평가했다. 도르트문트 핵심 공격수 아우바메양은 이번이 수비에 가로막혔고, 경기 도중 여러 차례 고립됐다. 아우구스부르크는 경기 후반 체력적 문제를 드러내며 밀렸지만 잘 버텨 넣은 무승부를 거뒀다. 경기 후 지동

원도 "마지막까지 수비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날 팀에 선제골을 안긴 지동원은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으로 득점을 예고했다. 경기 시작 직후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파울을 유도하고, 빠른 볼 터치와 과감한 돌파로 도르트문트 골문을 위협했다.

지동원이 올 시즌 골을 뽑은 상대팀은 바이에른 뮌헨(1위), 라이프치히(2위·이상 11승3무1패·승점 36), 프랑크푸르트(3위·8승5무3패·승점 29), 도르트문트(4위·7승6무3패·승점 27) 등 전부 강팀들이다. 지동원은 "어느 팀과 불던 특별한 것은 없다. 강한 선수들과 붙을수록 즐겁게 하려고 노력한다. 강팀과의 경기



지동원

는 늘 즐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작용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웃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선덜랜드에서 펄 때도 첼시, 맨체스터시티 등을 상대로 골을 터뜨려 '강팀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아우구스부르크는 올해 일정을 모두 마쳤다. 분데스리가는 한 달간의 겨울 휴식기에 돌입한다. 지동원도 "내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도르트문트(독일) | 윤영선 통신원

전남 '내실 다지기'...김준수·박대한 온다

알짜 선수들로 디펜스 라인 강화
노상래감독 탄탄한 조직축구 구상



김준수

박대한

'승격 팀' 강원FC를 제외하면 K리그의 겨울 이적시장은 떠들썩하지 않다. 올 시즌 클래식(1부리그) 무대에서 상위 스플릿(1~6위)에 안착해 희망을 안겨준 전남 드래곤즈라고 하는 다르지 않다. 지금껏 조용했고, 앞으로의 상황도 크게 바뀔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잠잠하다고 2017시즌을 향한 준비가 허술한 것은 아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나름의 착실한 전력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높은 이름값은 아니더라도 K리그에서 기량을 인정받은 알짜배기를 수혈하면서 '새 판'을 짜고 있다.

전남은 '행제구단' 포항 스틸러스에서 김준수(25)를, 인천 유나이티드로부터 박대한(25)을 영입하며 디펜스 라인에 힘을 실었다. 2013년 포항에 입단하며 프로에 데뷔한 김준수는 4시즌 동안 57경기(3골)에 나섰고, 박대한은 2014년부터 인천에서 64경기(1골·3도움)를 뒀다.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미 구단 간 합의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노상래(46) 감독의 구상은 확실하다. '내실 다지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최효진(33)~현영민(37) 등 영건 위주로 구성된 팀에 경험의 힘을 불어넣던 베테랑들을 불렀고, 자일(28·브라질)~유고비치(27·크로아티아)~토미(26·호주) 등 기존의 외국인선수 3총사를 잔류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진입 장벽이 높은 상위 스플릿에 합류했다는 나름의 자신감도 있다. 대대적인 보강보다 올해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안정적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섰다.

노 감독은 "우린 화려하지도 않고, 화려할 수도 없다. 다만 최대한 끈끈한 팀, 탄탄한 조직축구를 구사하는 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FC서울, 구단별 평균 유료관중 1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올 시즌 K리그 구단별 유료관중을 집계한 결과, 클래식(1부리그)의 경우 평균관중 7866명 중 74.7%인 5897명으로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평균 유료관중률은 6.6% 상승했다. 클래식의 1인당 입장수입인 객단가는 5141원으로, 지난해 4775원보다 400원 가량 늘었다. 구단별 평균 유료관중 1위는 FC서울이 차지했다. 1만8007명의 평균관중 중 86.4%인 1만5565명이 유료관중이었다. 서울은 객단가에서도 1만287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K리그가 객단가를 발표한 이후 첫 1만원대 진입이다. 지난해에는 9485원이었다. 포항은 홈관중의 96.3%를 유료관중으로 채워 K리그 최고 유료관중 비율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등록 징계 경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1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대한 징계를 경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가 내년 여름부터 정상적으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됐다. 당초 36만 스위스프랑(약 4억 2000만원)이던 벌금도 24만 스위스프랑(약 2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해 초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년간 등록금지 처분을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FIFA에 즉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CAS 제소를 선택했다. CAS는 FIFA의 징계가 지나치다며 그 수위를 절반으로 낮췄다.

편지 | 정윤호 기자 sadzoo@donga.com